

 국 무 조 정 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 도 자 료</h1>	2016. 6. 23(목)	
		작 성 문 의	정부업무평가실 성과관리총괄과 과장 김영선 / 사무관 서장원 (Tel. 044-200-2512)
* 엠바고 : 6.23(목) 15:30(행사종료) 이후 사용 / 모두말씀 별도배포			

## 정부와 민간, 의료관계자가 힘 모아 의료 한류를 더욱 확산

- 황 총리, 의료수출,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한류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
- 해외진출국 의료인 면허 인정, 신흥시장 홍보 강화 등 건의사항 적극 검토키로

□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23일(목)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의료수출 등 국제의료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 이번 점검은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6.23일)을 맞아 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과,
  -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기관의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는 세브란스병원 관계자 외에, 국제의료협회장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의료통역사 및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차관 등이 참석했다.

\* (참석) ①병원 등 관계자(정남식 연세대 의료원장, 서창석 국제의료협회장,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 차상면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박진노 보바스기념병원장 등) ②의료통역사 등(김용덕 의료통역사, 강지영 의료코디네이터) ③전문가(정태성 에이치앤 컨설팅 대표) ④관계기관(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류호영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민민홍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 임영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장) 등

□ '의료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박근혜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25개) 중 하나로서, 매년 해외진출 의료기관과 수출액 및 외국인 환자수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 \* △해외진출 의료기관(누적) : ('12) 91건 → ('15) 141건
- △보건산업 상품수출액 : ('12) 50억달러 → ('15) 82.4억달러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12) 16만명 → ('15) 30만명

○ 특히,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의 경우에는 최근 종합병원급\* 위탁 운영,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국내로의 환자 송출\*\*\* 등 진출유형이 대규모화, 다각화 하는 추세이다.

- \* 서울대병원 UAE 왕립 종합병원 위탁운영 계약 체결('14.8월), 서울성모병원 마리나 검진센터 위탁운영 개원('15.3월)
- \*\* 사우디 국방부 산하 6개 병원('14. 700억 규모)
- \*\*\* 쿠웨이트 환자송출 MOU 및 의료진 연수 협약 체결('16.5월)

○ 외국인환자 유치 범위\*도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한 중증·희귀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 진료과목별('15) : 내과통합진료(21.3%), 성형외과(11.1%), 검진센터(9.3%), 피부과(8.6%) 등

○ 환자 대상 통역, 의료서비스 종류 및 일정 조율(코디네이팅)과 환자·보호자 대상 관광 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 \*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 시 일자리 5.3만개 및 부가가치 3조원 창출 기대 ('15. 보건산업진흥원·KDI)

□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수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다양한 정책적 제언과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 참석자들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해외진출국에서의 의료인 면허인정과 신속한 취업비자 발급지원, 현지법인 설립이 용이하도록 정부지원 등을 제안하였으며,

-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방안으로 중동 등 신흥 성장시장 홍보 활동 다각화, 국제 환경변화에 영향 받지 않는 VIP 티켓 전략 마련, 의료목적 외 관광·쇼핑·MICE\* 사업수행 차 방한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연계 상품 개발,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환자 편의성 증진 등을 건의했다.

\* MICE : 기업회의(Meeting), 포상 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 등(Exhibition&Event)

- 특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김용덕 의료통역사, 강지영 의료 코디네이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質 관리와 전문 교육 제도 강화 등을 요청했다.

□ 이에 대하여 황 총리는 우리의 높은 의료기술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의료사업의 성장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적극적 지원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 특히 해외 관광객을 의료 관광으로 연계할 수 있게 야간 진료, 주말 진료 등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세계 속에 의료 한류가 확산되도록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붙임) 1. 「의료해외진출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2. 의료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의 종합적 육성·지원
  - 관련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정책심의회 구성·운영 등
  - 의료 해외진출에 의료서비스 및 의료기술·의료인력·의료정보시스템·의약품·의료기기 등의 제공을 포함, 중대형 패키지 진출 지원 가능
  -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하여 「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종합적 금융, 세제 지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홍보 등을 지원
  
- 외국인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질서 투명화
  - 유치 의료기관에게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의무 및 진료비, 분쟁해결절차, 예상 부작용 등에 대하여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 의무 부과
  - 과도한 수수료 요구 금지, 미등록 유치업자 또는 의료기관과 거래 시 최대 등록 취소 등
    - \* 과징금 : 미등록 유치행위 시 해당 매출액 전체, 과도한 수수료 수령 시 기준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 \* 불법 유치행위 신고 시 1천만원 이내에서 포상금 지급
  
-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 한도 규정\*, 공항, 항만 등에서의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전문인력 양성\*\* 등
  - \* 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8이하, 상급종합병원은 100분의 5 이하
  - \*\* 의료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및 의료통역검정 실시를 위한 검정영역·방법, 양성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1 의료수출**

□ '15년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8개국 141건(전년대비 17% 증가)

○ 국가별 순위는 중국(52건), 미국(33건), 카자흐스탄(9건), 몽골·UAE (각각 8건) 순

\* 한류의 영향으로 미용성형분야 수요가 지속 증가되고 있는 중국이 꾸준한 증가세, UAE에는 G2G협력이 진행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심 진출

○ 진출형태는 프랜차이즈(34건), 단독투자(29건), 합자·합작(24건), 라이선싱(24건) 순

\* 안정적 경영권 확보와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직접투자형태(단독+합자 합작+인수합병)가 증가('14. 43건 → '15. 55건)

○ 진출과목은 피부성형(54건), 한방(22건), 치과(18건), 종합(7건), 건강검진(6건) 순

\* 피부성형은 중국과 동남아 위주, 한방은 한의사 면허 취득이 용이한 미국 위주(82%)

○ 의료해외진출 동반인력은 총 89개 기관에서 659명을 파견

\* (직군별) 의사(171), 간호사(170), 전문기사(145), 행정인력(132) 순  
(국가별) 중동지역이 323명(49%), 중국이 276명(41.9)을 차지

□ '15년 보건산업 관련 상품 수출액은 82.4억 달러(전년대비 21.5% 증가)

< 2011~2015년 보건산업 연도별 상품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제 약	1,754	2,049	2,117	2,403	2,940	13.7
의료기기	1,673	1,967	2,357	2,577	2,711	12.8
화 장 품	805	1,067	1,290	1,800	2,588	33.9
합 계	4,232	5,083	5,764	6,780	8,239	18.1

○ 의약품은 완제의약품이 56.8%, 원료의약품이 43.2%, 의료기기는 '초음파 영상진단장치(18.6%)', 치과용임플란트(5.6%) 등

\*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주(셀트리온)' 유럽의약품청 허가 등의 영향으로 완제품 수출 대폭 확대('14. 12.4억\$ → '15. 16.6억\$, 35% ↑)

○ 화장품은 중국(41.1%), 홍콩(24.8%)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미국(7.3%), 일본(4.7%) 순

## ② 외국인환자 유치

□ '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총 296,889명(전년대비 11.4% 증가)

< 2009~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단위 : 명, %)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입원	3,915	7,987	11,945	14,809	20,137	23,855	24,489	35.7
외래	56,286	63,891	95,810	128,711	172,702	221,672	247,330	31.1
검진		9,911	14,542	15,944	18,379	20,974	25,070	20.4
합계	60,201	81,789	122,297	159,464	211,218	266,501	296,889	30.5

\* '09년은 외래와 건강검진 구분 없이 조사, 연평균 증가율은 '10-'15년(6년간)에 해당

○ 국적별 순위는 중국(33.4%), 미국(13.8%), 러시아(7.0%), 일본(6.4%) 순

\* 지속적 G2G협력을 하고 있는 카자흐스탄(4.2%), 우즈베키스탄(0.9%)과, 환자간 환자송출 협약을 맺은 UAE(1.0%) 등도 꾸준한 증가세

○ 진료과목별로는 내과통합진료(21.3%), 성형외과(11.1%), 검진센터(9.3%), 피부과(8.6%), 정형외과(6.1%) 순

\* 중국 환자는 성형외과(23.9%), 일본 환자는 피부과(28.2%)가 진료과목별 1위를 차지

○ 지역별로는 서울(55.8%), 경기(19.1%), 인천(5.4%), 부산(4.4%), 대구(4.4%) 순

\* 대부분 중국 환자가 1순위이나, 부산·경남은 러시아, 대구·충남·전북은 미국환자가 1순위를 차지

□ '15년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은 총 6,694억원(전년대비 20.2% 증가, 1인당 평균 225만원)

○ 국적별로는 중국(32.4%)이 1위, 러시아(11.8%), 미국(11.1%) 카자흐스탄(8.7%) 순

\* 주요국 중 1인당 평균진료비가 가장 높은 국적 : UAE 1,503만원

○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27.7%, 1인당 평균 450만원), 내과통합(15.7%), 일반외과(7.3%), 검진센터(6.7%), 산부인과(5.1%) 순

□ 향후 '16년 40만명 → '17년 50만명 → '18년 63만명 → '19년 80만명 → '20년 100만명 유치 목표

\* 「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1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